

노인의 가사노동 기여도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Household Work Contributions and Related Factors of the Elderly between Korea and Canada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부교수 정 순 회**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Associate Professor : Joung, Soon-Hee

〈Abstract〉

In this study, we challenge recent apocalyptic rhetoric about idle, burdensome, and dependent older people. Our primary objective is to examine and compare the productive activities of older adults in both Korea and Canada using a broader definition of productivity that included household work. Another objective is to identify and compare the factors related to the participation of household work of older adults in both countries. In order to conduct a comparative culture study two data sets were used: one was the 1999 Survey of Time Use collected by Korean Statistics Office and the other was 1998 Survey of Time Use collected by Canadian Statistics Office. Many countries have been collected a time use survey and used to study labor, welfare, and culture. Total number of 17,730 Korean and 2,729 Canadian between 55 and 84 were included to analyze the data. It is clear from the results that older people engage in productive behaviors, particularly when the definition of activities is broadened to include unpaid work. However, it is also clear the productive contributions in terms of household work are lower among older Koreans than among older Canadians.

▲주요어(Key Words) : 생산성(productivity), 가사노동(household work), 가정관리(domestic work), 돌보기(care to others)

1. 서 론

1. 문제제기

경제정책은 국가의 생산성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반면에 사회정책과 의료정책은 국가경제의 수행도와 사회에서의 개인의 생산성 양자에 대한 인식에 의해 구성된다(Hicks, 2002, p.24). 경제문헌에서 생산활동은 전형적으로 “시장에서 교환된 가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저장(stock)과 유량(flow)의 추가”로 정의되고(Herzog, Kahn, Morgan, Jackson,

& Antonucci, 1989, p.129), 이 때 개인 생산성여부를 결정짓는 주요요소는 노동시장 참여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은 최소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는 이 생산성 개념에 의하면, 개인, 가족, 사회에 대해 갖는 명백한 가치를 갖는 비공식 경제부문에서 발생하는 생산활동이 중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고(Anielski, Taylor, Griffiths, Campbell, Pollock & Wilson, 2000; Michael, 1996; Waring, 1988; Wolfson & Rowe, 19999). 둘째, 한 국가의 경제적 수행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인 생산성개념에 근거하는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총계지표는 사회적 혜택을 생산하는 많은 활동을 무시하고 따라서 관련 생산자를 제외시켜 국가생산성을 크게 저평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통적 개념에 의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인 노인과 주부는 가장 비생산적이고 의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간주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 2004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사업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주 저 자 : 정순희 (E-mail : jsh@ewha.ac.kr)

(Herzog과 그의 동료들, 1989; Little, 1984).

국가의 '사회적 부담'의 표준 지표인 부양비는 바로 이런 차별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유급노동자에 의해 부양되는 인구의 상대적 크기"(Chawla, 1991, p.3)로 정의되는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취업 연령이고 노동시장에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인구는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라고 가정하고 산정된다. 따라서 현재 산출되어 제시되고 있는 부양비는 의존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상당한 비중이 공식 및 비공식경제 내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 실제부양부담을 크게 왜곡시키는 지표인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서 개인의 생산적인 관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척도와 사회적 및 경제적 복지에 대한 총체적인 척도가 지속적으로 논의, 개발되고 있다(Anielski와 그의 동료들, 2000; Nordhaus, 2000; Waring, 1988). Goldschmidt-Clermont와 Pagnossin-Aligisakis(1995)는 어떤 활동이 생산적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그 활동이 가정 밖의 타인에게 위임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또한 Herzog, Franks, Markus 및 Holmberg(1995)은 생산활동이란 실제 유급여부와 관계없이 가치 있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은 필연적으로 생산성 개념에 가사노동활동을 포함한다. 이런 활동은 화폐혼적이 없기 때문에 측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간지출이라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가사노동활동에 대한 적절한 척도로 시간사용조사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통합된 관점이다(Wolfson & Rowe, 1999).

본 연구는 노인은 부담스럽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최근의 묵시적인 사회인식의 부정적성을 밝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비록 대부분의 노인이 성인생애의 두 가지 주요 활동인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에 비노인 보다 덜 관여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노인들이 다양한 노동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기능과 궁극적인 건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Herzog & House, 1991). 노인이 계속해서 생산적으로 기여한다면 사회의 재화와 용역을 증가시키고 그들 자신이 사회에 부가하고 있는 부담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노인의 생산노동에 대한 인식은 노인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기여연구로서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나 접근방법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자료를 통하여 노인의 생산노동의 존재와 수준을 명백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비교문화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로부터 얻어지는 보편타당성과 문화적 독특성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에 있다. 2002년도에 개최된 제2회 UN 세계 고령화 회의와 제 6차 국제노화연합(IFA: International Federation on Aging) 회의에서는 21세기 새로운 노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간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국가 간의 노령화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Gauthier & Smeeding, 2003).

이런 측면에서 아시아지역 선두 국가이면서 고령화 사회 단

계에 있는 한국과 아메리카 지역 국가이면서 고령 사회 단계에 있는 캐나다의 비교문화적 노인연구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되는 연구이다. 특히 고령 사회인 캐나다는 노인의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있어 다른 고령화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교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에 있어 미국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빈곤층 및 병약층 노인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미국에 비해, 노인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 의료,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더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가사노동을 통한 생산기여도 수준과 관련변수를 분석하며, 특히 한국과 캐나다 사회의 비교,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그 유사성과 차별성을 고찰함으로써 노인의 생산성 기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목적에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노인과 캐나다노인의 가사노동시간을 통한 기여도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것이고,

둘째, 한국노인과 캐나다노인의 가사노동시간과 관계가 있는 요소들을 규명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사노동시간은 가정관리시간과 자녀 및 기타 돌보기 시간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한 한국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분류체계에 따른 것이다.

II. 문헌고찰

1. 가사노동의 정의

한국통계청(2000) 생활시간조사의 생활시간분류체계에 근거하면 가사노동은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로 구분되며 가정관리항목에는 음식준비 및 정리, 의료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 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가정관리 관련 이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족 보살피기 항목에는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이 포함된다.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의 요구충족을 위한 무보수활동으로(이기영 외, 1993), 가족구성원들이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노동이다. 많은 학자들이 가사노동의 개념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왔는데,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사적인 가정생활의 장에서 무보수로 가정생활 구성원의 요구충족을 위하여 행해지는 노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사노동은 하루하루 일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되기 위하여 필수적인 활동이며, 그러나 무보수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가사노동의 경제활동을 생산활동으로 인정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여 전통적인 국민소득계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여성의 가사노동 연구분야에서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과제이다(김예실, 1985; 김준영, 2001; 김태홍, 2001; 문숙재, 1993; 문숙재·윤소영, 1997). 여성의 가사노동은 표준적인 경제정의에 따라 기술적으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그 가치가 무시되어 왔으며, 공식적인 통계에서 거의 평가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점이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들만큼 인정 받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똑 같은 논리가 노인의 가사노동을 통한 기여 평가시에도 적용된다. 노인은 비노인 인구에 비해 음식준비, 집수리, 기타 가족 보살피기 등과 같은 가사노동에 더 많이 종사하게 되는데, 이런 기여분이 전혀 평가되지 않음으로써 노인의 기여를 과소 평가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노인의 가사노동시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문숙재외, 2001).

2. 가사노동 관련 선행연구

전 생애를 통해 남녀 모두 가사노동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며 이러한 기여는 65세가 지난 후에도 지속된다. 실제로 남녀를 불문하고 노인인구는 적어도 학령 전 부모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활주기의 비노인 인구만큼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ast & Federick, 2004).

많은 횡단연구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65세가 지난 후까지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투입되며, 65세 이후에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여성보다는 상당히 작지만 65세가 지난 후에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rzog 과 그의 동료들, 1989; Lingsom, 1995; Robinson & Godbey, 1997). 같은 맥락에서, 1999년도 한국의 생활시간 사용 조사 자료를 이용한 결과(문숙재·성지미·정영금·윤소영, 2001)를 보면, 60대 이상 여성의 총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3.44시간으로 20대의 3.24시간 보다 많으며, 전체 연령의 평균인 2.85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한국 남자노인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약 1시간으로 모든 연령의 평균인 0.64시간보다 많고, 다른 모든 연령 대 남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문숙재 외, 2001).

지난 수 십 년 동안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캐나다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한 반면 캐나다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같은 기간동안 감소하는 추세이며, 한국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981년 29분에서 2000년 13분)(윤진호, 2003; 한국방송공사, 2000). 이는 노인가구의 가사노동실태를 분석한 조영희, 김대련 및 심영(1997)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 있는데, 즉,

조영희 외 연구(1997)는 노인가구의 가사노동은 거의 여자노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남자 노인과 딸은 약간 도와줄 뿐이며, 사회적 지원도 받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가사노동시간 중 돌보기 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Herzog 과 그의 동료들(1989)은 75세 이상의 고령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돌보는데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 했는데, 45세 이하의 개인들이 주로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이 집중되어 있다면, 노인의 돌보기 시간은 장기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인을 돌보는데 투입되었다. 의존적인 성인을 돌보는데 투입된 시간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증가하다가 55세-64세에 정점을 이루고 그 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문숙재 외, 2001; Herzog과 그의 동료들, 1989; Keating, Fast, Frederick, Cranswick, & Parrier, 1999).

한국통계청(2000)의 생활시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족 돌보기 시간은 평균 15분이고 남자노인은 12분, 여자노인은 18분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 돌보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의존적인 성인을 돌보는데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하였으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그 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숙재 외, 2001; Herzog과 그의 동료들, 1989).

가족과 그의 가족을 돕는 노인의 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Robb과 그의 동료들(1999)은 1992년 55세 이상의 5.4 백만 명의 캐나다인이 가족 및 기타를 돌보는데 보낸 시간의 가치는 4.8 억 만 달러에 이른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25세-54세 사이의 12.2 백만 명의 돌보기 시간의 가치가 6.1 억 만 달러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노인에 의해 제공된 무급의 돌보기 노동의 비중과 가치가 매우 지대함을 주장했다. 비록 한국의 경우 이와 비교할만한 자료는 없지만 노인이 돌보기에 비노인 인구만큼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돌보기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3.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

노인의 가사노동시간은 개인의 사회인구통계적 특성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국과 캐나다노인의 가사노동시간사용이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어떻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본다.

개인의 시간사용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중의 하나는 '은퇴'이다. 은퇴는 시장활동영역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전체 시간사용패턴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노인의 가사노동시간 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Havighurst, Neugarten & Tobin(1964)는 은퇴자들은 자신이 쓸모 있고 생산적이라는 느낌을 계속 갖기 위해서 이전의 유급 노동활동에 대한 대체 안으로 새로운 활동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Dosman, Fast, Chapman, Keating(2004)도 은퇴자들은 비은퇴자들에 비해 성별

에 따른 정도 차이는 있지만 가사노동시간이 유의하게 더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배우자의 유무 혹은 결혼상태가 생활 자체와 가사내용을 크게 변화시킴으로써 노인 시간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재간·김태현, 1986; Dosman, Fast, Chapman, Keating, 2004; Robinson & Godbey, 1997).

연령과 가사노동시간간 관계의 방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엇갈리고 있으나, 연령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요구, 능력 및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채로·이기영, 2004; Dosman, Fast, Chapman, Keating, 2004, Kamo, 1994).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구성원의 수는 전체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 수준과 가사노동 대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차성란, 1998; Dosman, Fast, Chapman, Keating, 2004; Robinson & Godbey, 1997), 요일에 따라서도 다양한 시간사용패턴을 보이고 있어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숙재 외, 2002; Dosman, Fast, Chapman, Keating, 2004; Robinson & Godbey, 1997).

교육수준과 가사노동시간간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으나(Dosman, Fast, Chapman, Keating, 2004), 상대적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이(이정수, 1984; 송혜림, 1988; 조미환, 1998; 조영희 외, 1997; Herzog 외, 1995; Robinson & Godbey, 1997)이 여자의 교육수준과 가사노동시간간 부적 관계를, 남자의 교육수준과 가사노동시간간 정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시간제취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률이 전업제에 비해 더 낮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은 오히려 전업제취업자보다 더 많아 시간 제약하에서 시간사용의 융통성이 더 낮아짐으로써 가사활동 등을 포함한 다른 활동 시간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간제취업자는 전업제취업자보다 가사노동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osman, Fast, Chapman, Keating, 2004; Robinson & Godbey, 1997)

도시거주여부는 가사노동의 대체가능성과 다른 활동에의 참여 기회에 영향을 줌으로써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거주자인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osman, Fast, Chapman, Keating, 2004; Robinson & Godbey, 1997).

자가와 단독주택거주의 경우도 주택 관련 가사노동에 대한 관심이나 요구가 증가함으로써 가사노동시간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종교활동여부는 일반적으로 노인의 가사노동시간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Dosman, Fast, Chapman, Keating, 2004; Robinson & Godbey, 1997).

III. 연구방법

1. 자료와 표본

본 연구에서는 한국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와 캐나다 통계청의 1998년 시간사용조사 자료가 비교문화적 연구를 위해 사용되었다. 한국의 「생활시간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하여 1999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조사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 자료에서 가구주 연령 55세 이상이고 84세 이하인 시간일지 17, 730 사례를 분석하였다.

시간일지는 10분 단위로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응답자가 2일 동안 직접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생활시간의 내용은 크게 총 7 가지이다. 이 7가지의 대분류는 통계청의 분류기준에 따른 것으로 개인유지시간, 일하는 시간, 학습시간, 가정관리시간, 가족 돌보기 시간, 참여 및 봉사활동시간,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을 구성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시간과 가족 돌보기 시간만이 고려되었다.

한편, 캐나다표본은 무작위로 심진수 전화번호추출을 통해 선택된 후 전화로 면접하였다. Yukon, Northwest, Nunavut 등 캐나다북부영역에 사는 노인과 시설에 사는 노인, 그리고 전화가 없는 노인들은 제외되었다. 자료는 시간사용에 있어 계절적, 주간적 그리고 매일매일의 변동을 찾기 위해서 1년 내내 수집되었으며, 주요활동시간을 알기 위해 24시간 회상일지가 사용되었다. 55세 이상 84세 이하의 노인 2,729명이 본 연구분석에 사용되었다.

2. 분석방법

한국과 캐나다노인의 가사노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정관리와 가족 돌보기에 응답자가 투입한 평균 시간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이 사용되었다. 시간사용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변량 분석은 Ordinary Least Squares(OLS) 회귀 분석이나 시간일지자료는 OLS의 기본 이론적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정규분포 종속변수의 존재와 오차 항이 평균 0 값을 갖는다는 가정은 종종 어떤 활동에 대한 시간사용이 0 값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면 종종 파괴된다. 0값은 응답자가 특정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거나 혹은 응답자가 다른 시간에는 그 활동에 참여하지만 특정 조사 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측정기술의 선택은 독립변수의 분포와 0값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나에 달려있다(Blundell & Meghir, 1987; Dosman & Fast, 2002).

따라서 종속변수가 정규 분포한 경우에는 OLS 회귀분석이 사용되었고, 실제로 응답자가 그 활동에 시간을 투입하지만 조사 일에 그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정규분

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Tobit 분석이 사용되었다(Blundell & Meghir, 1987; Sanik & Stanfford, 1996; Wooldridge, 2002).

모든 분석은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성별에 따라 시간사용패턴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Altergott, 1988; Verbrugge, Gruber-Baldini, & Fozard, 1996).

3. 변수

첫번째 비교분석은 가정관리와 돌보기에 사용한 하루 평균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둘째 다변량 비교분석에 두 가지 종속변수가 사용되었다. 즉, 하루에 가정관리에 사용한 평균시간과 돌보기에 사용한 평균시간이다. 가정관리활동은 음식준비 및 요리, 뒤처리, 실내·외청소, 세탁 및 다림질, 세탁물정리, 장보기, 가정경영관련 업무보기, 정원손질, 애완동물 돌보기 및 기타 등과 같은 세부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녀, 손자녀 및 기타 돌보기 활동은 병 수발, 보조, 책 읽어 주기와 대화하기, 교육 및 놀아주기 등과 같은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변량 분석에서 각 활동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로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은퇴여부, 결혼상태, 시간제취업여부, 도시거주여부, 자가여부, 단독주택거주여부, 요일, 종교활동 여부, 연령, 가정크기 및 교육수준이 선정되었다. 이 중 은퇴여부, 결혼상태, 시간제취업, 도시거주, 자가, 단독주택거주의 6개 변수들

은 이들 문항에 '예'라고 한 경우에 1, '아니오'라고 한 경우에 0을 부여하고, 요일 변수는 응답자의 시간사용 요일이 주중인 경우에 1, 주말인 경우에 0. 그리고 종교활동 참여 변수는 응답자가 최소한 한 달에 1회 이상 종교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1, 한 달에 1회 미만 참여한 경우에 0을 부여하여 총 8개의 변수들이 가변수화 되어 분석에 포함되었다. 한편 연령은 실제 노인의 연령으로, 가정크기는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의 수로, 그리고 교육수준은 노인이 교육 받은 실제 교육 년 수로 조작적 정의되어 분석에 포함되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노인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은퇴여부와 결혼여부의 경우, 은퇴하거나 결혼상태에 있는 한국남자노인의 비중이(각각 64%와 92%) 캐나다남자노인(약 55%와 약 82%)에 비해 더 높았고, 반면에 은퇴하거나 결혼상태에 있는 한국여자노인의 비중은(46%와 52%) 캐나다여자노인(51와 55%)에 비해 더 낮았다

한국남녀노인이(각각 44%와 32%) 시간제로 취업하고 있는 비중이 캐나다남녀노인에(약 4%와 5%) 비해 현저하게 높은 반면, 한 달에 1회 이상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은 한국남녀노인이(5%와 15%) 캐나다남녀노인(약 37%와 47%)에 비해 현저

<표 1> 한국과 캐나다 남녀표본의 일반적 특성비교

일반적 특성	한국(n=17,730)		캐나다(n=2,729)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은퇴유무(%)	54.0		53.2	
	64.0	46.0	55.4	51.3
결혼유무(%)	69.1		67.4	
	91.9	52.0	81.8	56.1
시간제취업유무(%)	37.0		4.3	
	44.0	32.0	4.2	4.9
도시거주(%)	68.0		72.5	
	66.0	70.1	73.7	70.4
자가(%)	83.3		69.9	
	86.0	82.0	73.3	66.9
단독주택거주(%)	70.0		61.6	
	70.0	70.0	66.1	57.6
종교활동참여(%)	11.1		42.2	
	5.0	15.1	36.5	47.2
연령(세)	65.0		67.3	
	64.0	66.0	67.9	66.4
가족구성원수(명)	2.8		1.7	
	2.9	2.7	1.6	1.9
교육 년 수 (년)	5.3		20.3	
	7.7	3.5	21.2	19.5

하게 낮았다. 도시거주의 경우 캐나다남자노인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비중이 약 74%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남자노인의 비중이 가장 약 67%로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한국남녀노인이 캐나다남녀노인에 비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비중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더 높았는데, 한국노인의 평균 자가 비중과 평균 단독주택거주 비중은 83%와 70%로 캐나다노인의 70%와 62%에 비해 더 높았다. 한국노인의 자가 비중이 더 높은 것은 한국의 경우 주택가격 등락이 커 주택관련 불안이 상존하고 있어 자가 소유가 전 생애에 걸쳐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목표로 간주되고 있는 사회풍토의 결과로 보여진다. 한국에서는 자기 집을 마련하기 전에는 다른 충족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욕구를 희생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기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자가를 획득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문숙재·최혜경·정순희, 2000) 반면 캐나다의 경우 주택가격이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서 주택을 간주하는 사회인식이 한국사회보다 약해 제도적으로 저금리의 장기(30년 이상) 주택저당제도가 확립되어 자기 집을 마련할 기회가 훨씬 더 용이함에도 자가 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캐나다노인이 남녀 모두 한국노인에 비해 연령이 더 많았으며, 특히 남자노인의 경우 가장 연령 차이가 커 한국남자노인이 캐나다남자노인에 비해 약 4세 가량 나이가 더 적었다. 한국노인과 캐나다노인 간에 남녀 모두 교육 년 수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캐나다노인의 평균 교육 년 수가 한국노인의 3.8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구성원의 수는 한국이 캐나다에 비해 약 1명 정도 더 많았다.

2. 한국노인과 캐나다노인의 가사노동시간 비교

한국노인과 캐나다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가정관리와 돌보기 활동 각각에 한국노인이(일일 평균 각각 2시간 14분과 20분) 캐나다노인(일일 평균 2시간 37분과 29분)보다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집단별 시간량을 보면, 가정관리시간의 경우, 한국여자노인이 하루 3시간 21분을 사용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캐나다여자노인 3시간 7분, 캐나다남자노인이 2시간 9분을 사용했고, 한국남자노인이 44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했다.

한편 돌보기의 경우, 캐나다여자노인이 하루 평균 30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했고, 다음으로 캐나다남자노인이 27분, 한국여자노인이 25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남자노인이 가장 적은 시간은 12분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여자노인이 가사노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한 반면(3시간 45분), 한국남자노인은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했다(52분).

3. 한국노인과 캐나다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비교

1) 가정관리시간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

가정관리시간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을 분석, 비교하기 위한 다변량 분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 한국여자노인의 가정관리시간 분석에만 OLS가 사용되었고, 나머지 분석에서는 Tobit 분석이 사용되었다.

은퇴변수는 한국여자노인과 캐나다남자노인의 가정관리시간과 정적 관계를 가졌으며, 결혼변수는 한국남자노인과는 부적 관계를 가진 반면, 한국여자노인과는 정적 관계를 가져 한국노인의 가정관리시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시간제취업은 한국남녀노인의 가정관리시간과 부적 관계를 가져, 한국노인이 시간제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 가정관리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거주는 캐나다남자노인의 가정관리시간과만 유의한 관계가 있어, 캐나다남자노인이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캐나다남자노인에 비해 유의하게 더 적은 시간을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는 캐나다남녀노인의 가정관리시간과 정적 관계가 있었고, 단독주택거주는 남녀 모든 집단의 가정관리시간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요일은 한국남녀노인의 가정관리시간과 정적 관계가 있어, 한국노인은 주말에 비해 주중에 가정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고, 종교 활동 참여는 한국여자노인의 가정관리시간과만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한 달에 1회 이상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여자노인은 한 달에 1회 미만 참여하는 한국여자노인에 비해 가정관리에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과 가정크기는 한국남녀노인의 가정관리시간과 부적 관계가 있었고, 교육수준은 정적 관계가 있었다.

<표 2> 한국노인과 캐나다노인의 가사노동 시간량의 비교

(단위=시간:분)

가사노동영역	한국		캐나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가정관리시간	2:14(2:19) ¹⁾		2:37(2:38)	
	0:44(1:16)	3:21(2:18)	2:09(2:28)	3:07(2:37)
돌보기시간	0:20(1:06)		0:29(1:07)	
	0:12(0:50)	0:25(1:15)	0:27(0:59)	0:30(1:14)

<표 3> 한국노인과 캐나다노인의 가정관리시간 영향 변수의 비교

	한국						캐나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b	SE		b	β		b	SE		b	SE	
은퇴	-0.16		0.43	1.68	***	-0.60	0.50	*	0.20	0.10		.014
결혼	-3.94	***	0.54	5.59	***	0.20	0.13		0.24	0.34		0.14
시간제취업	-6.87	***	0.38	-10.22	***	-0.34	0.49		0.41	-0.52		0.27
도시거주	0.49		0.40	0.22		0.01	-0.55	*	0.19	-0.28		0.15
자가	1.04		0.43	0.64		0.02	0.64	*	0.29	0.40	*	0.19
단독주택거주	2.29	***	0.36	1.17	***	0.04	0.50	*	0.24	0.43	*	0.17
요일(주중)	0.93	**	0.30	1.06	***	0.04	-0.21		0.18	0.15		0.14
종교활동참여	0.38		0.64	-1.29	***	-0.03	-0.20		0.17	0.02		0.12
연령	-0.10	***	0.02	-0.36	***	-0.19	0.02		0.01	-0.01		0.00
가정크기	-1.40	***	0.13	-1.41	***	-0.14	-0.21		0.11	0.10		0.07
교육수준	0.15	***	0.03	0.11	**	0.32	-0.01		0.01	-0.01		0.01
Constant	11.99	***	2.00	0.55		0.87	0.55	***	0.87	2.93	***	0.63
R Squared							0.22					
Adjusted R							0.22					
Long likelihood	-17667.40						-2192.11					

***p<.001, **p<.01, *p<.05

2) 돌보기 시간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

돌보기 시간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을 분석, 비교하기 위한 Tobit 분석의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은퇴변수는 한국남녀노인의 돌보기 시간과 부적 관계를 가진 반면, 캐나다남자노인의 돌보기 시간과 정적 관계를 가졌으며, 결혼변수는 양국 여자노인의 돌보기 시간과 정적관계를 가졌다. 시간제취업은 한국남녀노인의 돌보기 시간과 부적 관계를 가져, 노인이 시간제

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 돌보기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와 단독주택거주는 한국여자노인의 돌보기 시간과만 부적 관계가 있었다.

요일은 캐나다남자노인과 양국 여자노인의 돌보기 시간과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종교활동참여는 한국여자노인의 돌보기 시간과만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한 달에 1회 이상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여자노인은 한 달에 1회 미만 참여하는 한국

<표 4> 한국노인과 캐나다노인의 돌보기 시간 영향 변수의 비교

	한국						캐나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b	SE		b	SE		b	SE		b	SE	
은퇴	-2.89	*	1.14	-3.34	***	0.84	1.07	***	0.39	0.54		0.37
결혼	-.75		1.59	1.61	*	0.66	0.85		0.50	0.74	*	0.37
시간제취업	-8.42	***	1.08	-11.66	***	0.88	21.14		0.71	-0.09		0.76
도시거주	0.16		1.11	1.62		0.85	0.24		0.39	-0.43		0.39
자가	0.53		1.16	-2.27	**	0.73	0.21		0.56	0.78		0.53
단독주택거주	-0.50		0.95	-4.07	***	0.66	-0.30		0.47	-0.34		0.46
요일(주중)	1.38		0.82	1.18	*	0.57	1.41	***	0.39	1.19	**	0.40
종교활동참여	-0.73		1.73	-3.75	***	0.79	0.11		0.33	0.12		0.33
연령	-0.23	***	0.07	-0.68	***	0.05	-0.63	*	0.02	-0.34		0.24
가정크기	1.67	***	0.33	2.15	***	0.22	0.11		0.21	0.60	**	0.18
교육수준	0.17		0.09	-0.11		0.08	0.37		0.04	0.04		0.03
Constant	-14.26	*	5.60	-2.65		1.81	29.71	***	3.61	-0.59	**	1.82
Long likelihood	-5689.98						-12736.28					
							1665.58					
							-964.79					

***p<.001, **p<.01, *p<.05

여자노인에 비해 돌보기 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한국남녀노인과 캐나다남자노인의 돌보기 시간과 부적 관계가 있어, 55세 이상 연령이 많아질수록 돌보기 활동이 감소하였으며, 가정크기는 한국남자노인과 양국 여자노인의 돌보기 시간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은 부담스럽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최근의 묵시적인 사회인식의 부적절성을 증명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비록 대부분의 노인이 성인생애의 두 가지 주요 활동인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에 비노인보다 덜 관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노인들이 다양한 무급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의 기능과 궁극적인 건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인과 캐나다노인의 가사노동을 통한 기여도수준을 비교분석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를 규명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비교문화적 연구를 위해 두 가지 자료가 사용되었다: 하나는 한국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이고, 또 하나는 캐나다통계청의 시간사용조사 자료이다.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55세 이상 84세 이하의 총 17,730명의 한국노인과 2,729명의 캐나다노인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한국노인이 가정관리에 2시간 14, 돌보기에 20분을 사용하여 각 활동에 2시간 37분과 29분을 사용한 캐나다노인에 비해 더 적은 시간을 투입했다. 특히 한국여자노인은 가사노동에 가장 많은 3시간 45분을 사용하여 52분이라는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한 한국남자노인 사용량의 4배 이상을 보여, 시간측면에서 가장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녀노인 차이가 크지 않은 캐나다의 결과에 비해 남녀노인의 가사노동시간사용에 있어서의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 한국의 결과는 한국노인의 시간사용패턴이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많은데 남자라는 이유로 가사노동활동을 외면한다면, 이는 결국 노인의 생산적 삶을 저해하고 역할 및 존재감 상실로 인해 중국에는 노인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남자가 가사노동에 갖는 역할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물론 노인의 특성상 수십 년 동안 사회관습속에서 굳어진 역할인식이 크게 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노인자신의 복지를 위해 가사노동을 포함한 무급노동이 노인의 독립적인 삶과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려 참여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한 노인회 산하 노인교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회 등에서 보다 지속적인 노인대상 역할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미래노인이 될 전 성인후기 세대, 특히 성인남

자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생산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역할정립을 위한 목표지향적 교육이 요구된다.

둘째, 은퇴한 캐나다남자노인과 한국여자노인은 가정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는데, 가정관련 일을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여전히 그 생각이 남아있는 한국사회에서 '은퇴' 사건은 여자노인으로 하여금 여자의 일에 좀 더 전념하도록 하는 기제가 됨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사회에 비해 보다 평등한 역할인식과 노동분담에 익숙한 캐나다사회에서 은퇴로 인해 시간의 이용가능성과 융통성이 많아진 캐나다남자노인이 가정관리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결혼여부가 한국남녀노인의 가정관리시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 특히 결혼한 한국여자노인이 가정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반면 결혼한 한국남자노인은 가정관리에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한 결과는 캐나다사회와는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성역할 지향적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결혼의 어떤 측면이 사람들의 시간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두 문화권에서 결혼이 갖는 영향이 다름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규명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넷째, 연령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가정구성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한국남녀노인의 가정관리시간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노인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노인 자체의 가정관리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인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정관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구성원이 스스로 일을 처리할 만큼 성장, 분담 혹은 독립할 가능성이 높아 가정관리요구수준이 감소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표본의 최소 연령이 55세임을 고려한다면, 평균 2.8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한국노인의 다른 구성원은 대부분이 성인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가정구성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노인의 가정관리부담을 상당량 분담 내지는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정크기와 한국남녀노인의 가정관리시간과의 부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가정구성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한국남자노인과 양국 여자노인의 돌보기 시간이 증가한 결과는 가정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있어 음식, 세탁, 청소 등과 같은 활동을 분담, 대체해 줄 가능성은 높지만 가족구성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본적인 돌보기 시간은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활동의 정의가 가사노동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확대되는 경우에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노인들이 여전히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본 연구의 초점이 노인의 가사노동을 통한 생산활동 기여도 분석과 그 관련변수분석에 전적으로 맞춰져 있지만 '성공적인 노화'에 관련된 문헌들은 노후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 여가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을 통해서 강화된다고 제시하고

있어 노인 자신의 복지와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노인활동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에 더욱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의 여러 기관 및 정책 결정자들은 생산적인 일에 관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열망과 이런 참여를 가능케 해 주는 융통성증가에 대한 노인의 니즈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노인의 전통적인 성역할의식에 사로잡혀 그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그 틀을 탈피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현재 기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기여분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사회전체에서의 노인에 대한 일부 편견을 수정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의존자, 주변인으로서의 노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노후생활 활동의 본질과 특히 노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여들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함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생산성의 개념이 개인이 사회의 의존자 혹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돕는 활동을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 분야는 후속연구를 위한 중요한 연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한 자료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가장 큰 한계점은 본 연구에서 한국노인과 캐나다노인의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할 때 사용한 시간자료가 한국의 경우는 10분 단위의 시간일지를 통해 2일 동안 기입한 자료의 일일 평균시간을 사용하였고, 캐나다의 경우는 24시간 회상일지를 통해서 기록한 시간자료로서 상이한 방법을 통해 수집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료수집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결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해석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비교문화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아니지만 가사노동활동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이 거의 완벽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가사노동시간을 통한 기여도와 관련변수를 규명하고 비교함으로써 기본 윤곽을 비교·제시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다른 한계점은 노인의 가사노동시간을 포함한 생활시간사용패턴이 노인의 건강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많은 선행연구결과들(강진철·이충훈, 2000; 이희범·한혜원, Dosman, & Fast, 2002; Dosman, Fast, Chapman, & Keating, 2004; Fast, Frederick, 2004; Herzog, Franks, Markus, & Holmberg, 1995)에 의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음에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통계청의 자료에 개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없어, '건강'이라고 하는 중요한 변수가 분석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가사노동이 노인복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선행연구들에 근거해 언급하였을 뿐, 노인의 가사노동시간이 노인의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가사노

동을 통한 노인의 기여가 실제로 노인의 자아 존중감이나 생활만족감, 혹은 복지감 등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노인의 삶에, 그리고 노령사회에 있어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보다 분명히 규명할 수 있고, 노인의 역할인식 제고나 가사활동참여 고무를 위한 방안 모색을 촉구하는데 있어 보다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서구 선진국의 시간자료가 대부분 건강상태와 심리적 복지감을 추정할 수 있는 대용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 통계청의 후속 생활시간자료가 이러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제공된다면 후속연구자들이 한층 표준화되고 다양한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접수 일 : 2005년 02월 24일

□ 심사 일 : 2005년 03월 23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5월 11일

【참 고 문 헌】

- 김애실(1985).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여성연구*, 3(4), 25-47.
- 김준영(2001). *한국정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GNP 비율 추정*.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홍(2001).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정책화 방안. *여성의 무급노동 평가와 정책화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부. UNDP.
- 문숙재(1993). *가정생산: 가정노동의 생산성과 평가를 위한 접근*. 신광출판사.
- 문숙재·성지미·정영금·윤소영(2001). *무보수 가사노동 위생 계정개발을 위한 연구*. 여성부 정책자료, 2001-23.
- 문숙재·윤소영(1997).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41-52.
- 문숙재·윤소영·김은희(2002). 무보수 가사노동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40(10), 161-176.
- 문숙재·최혜경·정순희(2000). *한국 중산층의 생활문화*.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68집. 집문당.
- 박재간·김태현(1986). 현대사회에서의 노년기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6, 27-40.
-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에 대한 부인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 실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호(2003). *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 생활시간의 변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이기영 외(1993).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페미니즘의 영향과 가정관리학의 연구방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24.
- 이정수(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03-132.

- 조미환(1998). 도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와 가정생활만족도, *한국여성교양학회지*, 5, 5-20.
- 조영희·김대련·심영(1997).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141-155.
- 차성환(1998). 서울시와 대전시 거주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시간. *대한가정학회지*, 36(5), 137-150.
- 채로·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 통계청(200). 생활시간조사.
- 한국방송공사(2000). 국민생활시간조사.
- Altegart, K.(1988). *Daily life in later life: Comparative perspectives*. Newbury Park, CA: Sage.
- Anielski, M., Taylor, A., Griffiths, M., Campbell, B., Pollock, D., Wilson, S., & Wilson, J.(2000). The alberta genuine progress indicator(GPI) accounts: A blueprint for the way we really live. Drayton Valley, AB: Pembina Institute.
- Blundell, R. & Meghir, C.(1987). Bivariate alternatives to the tobit model. *Journal of Econometrics*, 34, 179-200.
- Chawla, R.(1991). Dependent ratios. *Canadian Social Trends*, 20, 3-5.
- Dosman, D. & Fast, J.(2002). *Assessing the empirical challenges of time use data: A comparison of three estimation techniqu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me Use Researchers Conference, Lisbon, Portugal.
- Dosman, D., Fast, J., Chapman, S. A. & Keating, N.(2004). Retirement and productive activity in later life. Unpublished paper.
- Fast, J. & Frederick, J.(2004). Time is all there is. *In days of our lives: Time use and transitions over the life course*, *Statistics Canada*, Catalogue No.89-584.
- Gauthier, A. H. & Smeeding, T. M.(2003). Time use at older ages: Cross-national differences. *Research on Aging*, 25(3), 247-274.
- Goldschmidt-Clermont, L. & Pagnossin-Aligisakis, E.(1995). *Measures of unrecorded economic activities in fourteen countries*. New York: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 Herzog, A. R., Franks, M. M., Markus, H. R. & Holmberg, D.(1995). Productive activities and agency in older age. In M. M. Baltes & L. Montada(Eds.), *Produktives leben im alter*, 323-343. Frankfurt, Germany: Campus.
- Herzog, A. R., & House, J. S.(1991). Productive activities and aging well. *Generations*, 15, 49-54.
- Herzon, A. R., Kahn, R. L., Morgan, J. N., Jackson, J. S. & Antonucci, T.C.(1989). Age differences in productive activiti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4, S129-S138.
- Hicks, P.(2002). *Preparing for tomorrow's social policy agenda: New priorities for policy research and development that emerge from an examination of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working age population*. Ottawa: Social Research and Demonstration Corporation.
- Keating, N., Fast, J., Frederick, J., Cranswick, K. & Perrier, C.(1999). *Eldercare in Canada: Context, content & consequences*. Ottawa: Statistics Canada.
- Lingsom, S.(1995). *Women's time use over the life cycle*, In I. Niemi(Ed.), *Time use of women in Europe and North America*, 55-71, Geneva, Switzerland: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Little, V. C.(1984). An overview of research using the time-budget methodology to study age-related behavior. *Ageing and Society*, 4(1), 3-20.
- Michael, R. T.(1996). Money illusion: The importance of household time use in social policy making.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7(3/4), 245-260.
- Nordhaus, W. D.(2000). New directions in national economic accounting. *American Economics Association Papers and Proceedings*, 90(2), 259-263.
- Robb, R., Denton, M., Gafni, A., Joshi, A., Lian, J., Rosenthal, C. & Willison, D.(1999). Valuation of unpaid help by seniors in Canada: An empirical analysis. *Canadian Journal of Aging*, 18(4), 430-446.
- Robinson, J. P. & Godbey, G.(1997).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 time*.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Sanik, M. M. & Stafford, K.(1996). Children's time in household work: Estimation issu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7(3/4), 313-325.
- Verbrugge, L. M., Gruber-Baldini, A. L. & Fozard, J. L.(1996). Age differences and age changes in activities: Baltimore longitudinal study of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1B(1), S30-S41.
- Waring, M.(1988). *Counting for nothing: What men value and what women are worth*. Wellington, NZ: Allen & Unwin.
- Wolfson, M. & Rowe, G.(1999). *Good Life Time(GLT): Health, income, and the time to enjoy them. Indicators based on a new integrated microanalytic framework for socio-economic statistics*. Ottawa: Statistics Canada.
- Wooldridge, J. M.(2002). *Econom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Cambridge, MA: MIT.